

삼성전자, AI 홈 사업 힘 준다 단독주택 특화 주거공간 혁신

‘삼성 AI 모듈러 홈’ 쇼룸 선보여
스마트싱스 기반 특화기능 제공
이상상황 발생시 긴급대응 지원

삼성전자가 모듈러 주택 시장 공략에 나섰다. AI 가전과 스마트홈 플랫폼 ‘스마트싱스’를 앞세워 단독주택에 특화된 통합 주거 솔루션 ‘삼성 AI 모듈러 홈’을 선보이며 AI 홈 사업 영역을 주거 공간 전반으로 확대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삼성 AI 모듈러 홈’ 쇼룸에서 단독주택에 특화된 AI 주거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24일 밝혔다. 삼성 AI 모듈러 홈은 목조 모듈러 주택 전문기업 공간제자사와 협력해 구현한 솔루션으로, 주택 설계 단계부터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주택 디자인, AI 가전의 규격, 급배수 등 설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부 공간과 가구에 최적화된 상태로 탑재된다.

이날 쇼룸은 단독주택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다양한 AI 홈 시나리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삼성전자는 ▲집입·보안 ▲화재·누수 ▲에너지 관리 ▲가족·지인 초대 등 네 가지 영역에 특화된 AI 기능을 집중 소개했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보다 외부와 맞닿은 공간이 많아 보안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스마트싱스를 기반으로 AI 도어캠과 홈캠, 로봇청소기 등을 연동해 집 안팎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관에 설치된 AI 도어캠은 문밖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스마트폰과 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삼성 AI 모듈러 홈’ 쇼룸 외관. /삼성전자



이신영 삼성전자 DA사업부 뉴비즈팀 그룹장이 ‘삼성 AI 모듈러 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삼성전자

전 스크린으로 보여주며, 에스원 출동 서비스와 연계한 긴급 대응도 지원한다.

화재나 누수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연결된 센서가 이를 감지해 사용자에게 즉시 알림을 보내고, 집 안 조명과 TV, 스피커, 로봇청소기 등을 통해 위험 상황을 안내한다. AI 기반 원격진단 서비스(IR M)는 가전제품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이상 발생 시 조치 방법과 부품 교체 시기를 알려줘 유지관리 부담을 줄여준다.

에너지 절감 기능도 강조했다. 스마트싱스 기반 ‘AI 절약모드’는 실시간 전력 사용량을 분석해 누진 구간 도달 전 연결된 가전을 절전 모드로 전환한다. 재질 센서와 블라인드, 에어컨을 연동해 여름철에는 실내 온도 상승을 줄이고 겨울철에는 일조량을 확보하는 등 계절과 환경에 맞춘 자동 제어도 가능하다. 고효율 ‘EHS 히트펌프 보일러’를 적용하면 기존 등유 보일러 대비 난방비를 절반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다.

생활 편의 기능도 강화했다. 스마트싱스 자동화 기능을 활용하면 가족이나 지인이 도착하기 전 조명과 실내 온도, 음악을 한번에 설정할 수 있다. 비스포크 AI 패밀리러브’ 냉장고는 식재료 인식과 관리, 레시피 추천을 지원하며, 비스포크 AI 콤팩트’ 세탁건조기와 비스포크 AI 스티밍 울트라’ 로봇청소기 등도 연동돼 가사 부담을 덜어준다.

이신영 기자
hyeon@metroseoul.co.kr



LG전자, ‘시그니처 올레드 W’ 글로벌 출시

무선 저지연 전송 기술로 초슬림화

LG전자가 초프리미엄 올레드 TV 신제품을 앞세워 프리미엄 TV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세계 최초 무선 저지연 전송 기술과 최신 인공지능(AI) 프로세서를 적용한 차세대 제품을 선보이며 글로벌 올레드 TV 시장 리더십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국내를 시작으로 차세대 월페이퍼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W’ (모델명 W6)를 글로벌 시장에 순차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품은 연필 한 자루 수준인 0.9cm대의 두께로 벽에 밀착되는 2026년형 무선 월페이퍼 TV다. 패널부터 파워보드, 메인보드, 스피커에 이르는 모든 부품에 초슬림화 기술을 적용해 울인원 초슬림 디자인을 구현했다.

특히 LG전자는 글로벌 인증기관 TUV 라인란드로부터 ‘진정한 무선 저지연 비전’ 인증을 세계 최초로 받은 차별화된 무선 전송 기술로 신제품의 초슬림 디자인을 완성했다. 이를 통해 LG 시그니처 올레드 W는 4K·165Hz 주사율의 고품질 영상을



월페이퍼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W’ /LG전자

기존 무선 전송 시 흔히 발생하는 화질의 손실·지연 없이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2026년형 LG 올레드 TV에 탑재된 최신 올레드 화질·음질 AI 프로세서 ‘3세대 알파 11(α 11 4K Gen3)’은 5.6배 향상된 NPU 성능으로 빠른 화면 변화에도 깨끗한 화질을 유지하고, 그래픽 처리 성능도 70% 높아져 더욱 자연스럽고 깊이 있는 화질을 보여준다.

LG 시그니처 올레드 W의 가격은 출하 기준 77형 1050만원, 83형 1600만원이다.

한편 LG전자는 ‘LG 시그니처 올레드 T’의 새로운 라인업인 T6도 국내에 출시한다. /차현정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 데이터 기반 신약개발

디지털 임상 기업 알체디스 파트너십

삼성전자가 갤럭시 위치로 수집한 일상 생체 데이터를 신약 개발 임상시험에 본격 투입한다.

2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전일 데이터 기반 디지털 임상시험 전문 기업 알체디스(Alcedis)와 파트너십을 맺고 갤럭시 위치 센서로 수집한 생체 데이터를 신약의 효과·안전성 평가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공동 개발한다.

양사는 데이터 수집부터 연구 참여자 모니터링, 임상시험 운영, 규제 대응까지

임상 연구 전 과정에 걸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최종민 삼성전자 MX사업부 헬스케어 그룹 상무는 “임상 연구는 기술과 과학적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파트너가 힘을 모아 인간의 건강을 더 깊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그동안 삼성 헬스 SDK 등 여러 개발 도구로 연구자들을 지원해왔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일상의 데이터가 신약 개발 연구와 환자를 위한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광물 회수 등 기술력 강화... 수익성 대폭 개선

K-산업 돋보기

고려아연 ‘체질개선 박차’

최윤범회장 취임 후 R&D 비용 급증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신사업 가속

세계 최대 비철금속 제련업체인 고려아연은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며 안정적인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같은 성장 배경에는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기술력 강화로 핵심광물 회수율 증대와 신사업 전략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지난해에도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티모니 등 희소금속을 대량 생산하며 연간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하는 등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 R&D 투자 확대로 기술력 강화... 진짜 무기는 ‘제련·회수’

고려아연은 연구개발(R&D)부터 전략 광물, 자원 순환, 환경, 안전 인프라 등 전 방위에 걸쳐 자금을 집행해 미국 제련소 건립 투자와 국내 투자를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윤범 회장이 취임한 2022년을 기점으로 고려아연의 R&D 비용은 빠르게 상승했다. 2022년 75억원에서 2023년 105억원, 2024년 112억원,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지난해 6월 온산제련소 내 안티모니 공장을 방문해 생산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고려아연

2025년 178억원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매출 대비 비중도 0.09%에서 0.17%로 증가했다.

이같은 기술력 강화로 전자제품에 주로 사용되며 금속 배터민이라고 불리는 인듐을 비롯해 전략광물자원인 안티모니와 비스무트, 텔루륨 등 매출이익률이 높은 희귀·희소 금속의 회수율 증대에 수익성 개선을 이끌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 다수의 제련소들은 목적금속 위주의 생산을 진행하고, 목적 금속 회수후의 잔재는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전 세계 유일하게 아연-연-동 통합공정을 운영하며 현재 아연 및 연정광 안에 포함된 극소량의 희소, 희귀금속 12가지를 추출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지난 50년간

끊임없는 기술개발 투자와 조업 개선을 통해 가능했다.

고려아연은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인 희소, 희귀금속의 회수 능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희귀금속 회수율을 품목별로 20~30% 이상 끌어올려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기존 제련업을 경쟁력 있는 친환경 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인천 송도에 2000억원을 투입해 연구·개발(R&D)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송도 R&D센터는 신성장동력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핵심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 이차전지 소재, 자원순환 사업 외 기존 제련사업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 개선과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2025년 연말 공사를 시작해 2027년 4월 준공 예정이다.

또 고려아연은 지난해 말 ‘아연-연-동 통합공정을 활용한 희소금속 농축·회수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신청한 상태다. 이번에 신청한 기술에는 탄약과 방산 전자장비, 방호 합금 등 방산 분야 핵심 소재로 쓰이는 안티모니 제조 기술도 포함돼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와 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을 지키고 국내 첨단·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대한항공,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 참가

무인기·UAM 등 미래 기술 선보일

대한항공은 24~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기술대전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대표 국토교통 기술 전시회다.

대한항공은 이번 전시에서 공중의 드론과 지상의 로버가 협업하는 AI 기반 항공기 로봇 검사 시스템을 선보인다. 기존 정비사의 육안 점검 방식을 항공기 상부

를 살피는 드론과 하부를 점검하는 로버의 군집 운영, AI 분석 체계로 전환한 기술이다.

미래 무인 항공체계 기술도 공개한다. 무인기 자율 임무 수행 시스템 ‘AI 파일럿(AIPilot)’은 개발 중인 저피탐 무인편대기와 아음속 표적기 등 여러 무인기 플랫폼에 AI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다.

대한항공은 UAM 국가전략기술사업단과 함께 통합 교통관리 솔루션 ‘어크로스(ACROSS)’도 공동 전시한다. /양성운 기자

LG화학, 지속가능항공유 기술 실증 착수

이산화탄소 전환 기술 고도화

LG화학이 이산화탄소를 자원으로 활용해 지속가능항공유(e-SAF)를 생산하는 기술 실증에 착수한다.

LG화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CCU(탄소 포집·활용) 메가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산화탄소를 지속가능항공유로 전환하는 기술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LG화학이 총괄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현대건설, 엘티메탈, 프로켄에너지머링을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고등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UNIST, 군산대학교, 충청남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다. /원관희 기자 wkh@